

‘식혜’에서 배우는 문화국제화

주강현

역사민속학자

지난 봄과 여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외국인 한국학 연구가의 현지답사프로그램을 지도한 일이 있다. 그때 많은 ‘지한파(知韓派)’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된 불만은 우리문화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책이 없으니? 그날로 서점에 달려가서 마땅한 책이 없는가하고 리스트를 작성 해보았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화려한 장정, 지나치게 비싼 가격, 알맹이 없이 천편일률적인 내용, 비전문가가 집필한 책들이 다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것도 영어책이 대부분이고 그외의 언어권은 드물었다.

우리문화의 국제화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책의 국제적 번역으로부터 시작된다. 번역 언어권의 다양성 확보, 번역출판 종류의 다양화, 전문 번역인의 양성과 지원, 외국어 출판의 지원, 늘 이야기 되어왔던 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무얼하고 있는가. 우리문화의 국제화, 관광문화의 세계화 등의 구두선을 외치기 전에 온전한 기초공사의 하나인 우리문화 외국어책 출간 사업에 투자를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국의 문화를 꾸준히 소개하는 일은 당대에 바로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사안은 못된다. 오늘의 투자는 다음 세대에게 돌아가는 훌륭한 ‘장기저축’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출간한 우리 문화 관련 책자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식혜는 우리 식생활문화가 거둔 승리의자 희망이다”.

왜 식혜가 우리문화의 승리의자 희망일까. 식혜가 그토록 인기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명절이나 잔치 때나 먹던 민족음료의 상품화와 대중화는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다. 식혜의 성공은 수정과, 대추를 위시하여 속속 민족음료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혜는 ‘깡통’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는 순간, ‘성공’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맞춘 ‘변법자강책(變法自強策)’이자 ‘법고창신(法古創新)’이지 않은가. 식혜라는 내용물은 바뀌지 않았으니 법은 옛것임에 틀림없고 깡통이란 형식으로 갈아입었으니 변법은 이론 셈이다. 그 결과 스스로 강해졌고 새로워졌다. 식혜는 우리 문화에 대해 우리들이 마인드를 적절히 바꾸었는가를 시험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다보탑이나 석굴암을 해외 곳곳에 세울 수는 없는 일, 그러나 식혜나 김치는 외국의 안방 냉장고에도 넣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쓴 우리문화 책들을 외국의 서가에 꽂아 둘 수 있다. 우리는 참으로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느낀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식혜의 성공사례에서 모범을 배워야 한다고 믿는다. 무조건 우리 문화이므로, 너희도 보아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변법자강하고 법고창신하여 나날이 새로워진 현대적 미감으로 그들과 만나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만 접속하면 얼마든지 외국에 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나치게 덜 국제화되어 있다. 서구문화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문화식민지적 현상은 보일지언정 자국문화를 주대있게 내세우는 자존심은 약하다. 국제화는 자신의 것을 발가벗는 데 있지 않다. 국제화와 문화식민지화를 혼동하는 시대에서 참으로 우리 문화의 진정한 국제화가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참관기	2 제6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를 돌아보고 - 김경희
출판시평	3 재미는 있으나 원칙이 없는 대중역사서 - 정태현
특집/Books On Korea	4 '한국 알리기' 아직도 우물 안 전문출판, 정부관심 부족... 서점 진열 일관성 없어
	6 나에게 한국을 알게 해준 책 나를 한국으로 이끈 김소운님의 글 - 도다 이쿠코 '한국의 혼'을 일깨워주는 탁월한 문학 - 마리즈 부르탱 한국의 바다에서 부딪친 책의 물결 - 크리스틴 오토
쟁점 서평	10 《녹색정책》 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 이정전
출판시론	11 자원봉사 책,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가 - 이용교
출판화제	12 세분화·전문화한 학술사전 늘고 있다
	14 잇따른 문고시리즈로 출판계 새 국면
화제의 책	16 경영인·공직자는 어떤 책 읽나
	17 고석규·고영진 지음 《역사 속의 역사읽기》
출판계 소식	15 출협 선정 '이달의 청소년 도서'·외
추석 에세이	18 소박한 걸장을 열면 조출한 생애가 - 이혜숙
책갈피 산책	9 《아톰의 철학》을 읽고 - 김소진
	19 《하버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기까지》를 읽고 - 조병희
서평	20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 연구》 - 박종진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 연구》 - 서연호
	21 김효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 이석연 유사라 《정보화사회와 도서관정보네트워크》 - 이두영
	22 웅 《인간과 상징》 - 박창호 박정호 외 《현대철학의 흐름》 - 김영숙
	23 임영호 편역 《슈투어트 홀의 문화이론》 - 이현석
컬러 화보	24 서구인의 눈빛, 조선의 얼굴 《서양인이 본 조선》 출판기념 도서전의 이모저모
해외신간 리뷰	26 룩스의 《카리타트 교수의 이상한 계몽》 - 김종엽
재미있는 기획산책	27 스스로 만드는 바인더북 백과 - 장익순
이 책 그 사람	28 《에이즈 X-파일》 퍼낸 안종주씨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퍼낸 곽정란씨
	29 《백두대간》 퍼낸 길춘일씨
새책 흐름	30 지구상의 생물과 친하게 지내기 / 과학·어린이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